

광주시, '인공지능 바우처'로 기업 성장 이끈다

시민·지역기업 중심 지원사업 29일까지 AI기업 15개사 모집 시민들에 AI 제품·서비스 제공 "일상체험·기업 판로 확대 기대"

광주시가 지역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성장을 견인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인공지능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의 인공지능 기술 체감을 위해 '시민·지역기업 중심 인공지능(AI)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15개사를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민이 일상에서 지역 인공지능기업의 다양한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으로 이용하고, 기

업은 이들을 고객으로 확보해 매출 증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AI 제품과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설치형 제품·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 접근성이 좋은 공공장소에 AI 제품·서비스를 설치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AI 실증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2차 모집에는 광주에 본사, 지사, 연구소를 둔 인공지능 지역 기업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은 AI 이용권을 지원받아 시민에게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2차 모집의 이용권 지원금액은 총 2억 원이며 최대 15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각 기업별 이용권 지원금액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되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선정된 기업에는 AI 제품·서비스 개선을 위한 상담(컨설팅), 인공지능 투자 유치설명회(IR) 참가, 국제 인공지능 학술대회 참가 등 혜택도 주어진다.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광주지역 인공지능기업은 오는 29일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누리집(<http://www.aica-gj.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4월 1차 참여기업 모집에서는 총 27개 지역 인공지능 기업이 신청, 평가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8개 기업의 AI 제품·서비스가 선정돼 시민들에게 이용권을 제공했다.

인공지능 기반 개인맞춤형 식단·운동

추천 및 건강관리 솔루션인 ㈜소울소프트의 '재다(Zae-da)'는 AI를 활용한 식사 이미지 분석과 체형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에이아이플랫폼은 AI를 활용한 안저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엑스알에이아이의 '지피티(GPT) 기반 AI 챗봇'은 챗지피티(GPT)를 포함한 다양한 대형언어모델(LLM)을 통해 편리한 고객 응대를 위한 고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트플로우의 '옛지세이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산업안전 행동 분석을 통해 사람의 쓰러짐, 위험구역 출입, 외부인 침입 등 이상행동을 감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주)세이프모션의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행동인

식을 통해 보육교사, 아동 보호자에게 필요한 아동 행동 발달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세이프모션 키즈 어린이집 행동분석 솔루션', (주)고탁의 탁구스윙분석, 탁구라켓 러버소모량 측정, 스크린탁구 등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탁구라켓 트레이닝', (주)밍글론의 인공지능 기초 역량인 컴퓨팅 사고력과 국어, 수학 등 교육과정을 융합해 놀이와 게임 콘텐츠로 개발한 '인공지능 기초 융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인공지능 서비스를 일상에서 경험하고, 기업은 판로 확대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인공지능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inilbo.com

김영록 지사-전남도의회사회, 의료공백 대책 논의

공공의료기관 시니어 의사 확충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 논의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전남도의회와 함께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과 전남도의회 최은창 회장, 김종현 부회장, 조생구 한사랑병원장, 재갈재기 의사회총무 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의료 살리기 공동 대책 방안,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등 다양한 주제가 화두에 올랐으며, 특히 공공의료기관 시니어 의사 인력 확충과 지역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구

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 취약지가 많은 전남도의 의료공백 문제 해결에 한층 더 다가간 것 같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의회사회 측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의료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도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2월23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상황 종료 시까지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전남도의회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으로 진료 공백 방지와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지현 기자



태권도아카데미 미국과 멕시코 등 광주 국제 태권도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15일 조선대 체육대학에서 앞차기와 품새를 배우며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오는 21일까지 훈련 및 광주지역 탐방을 펼친다. 아카데미는 광주시와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했으며 조선대와 광주시태권도협회, 국제태권도아카데미조직위원회가 주관했다. **나건호 기자**

광주시, '어린이 수돗물 체험 캠프' 운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8월20~21일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를 운영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어린이 수돗물 체험캠프'는 어린이들이 수돗물과 관련된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고,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캠프는 오는 8월20일과 21일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덕남정수장에서 현장견학, 수돗물 수질검사 체험 등 2회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수돗물 직접 만들기 △수돗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살펴보기 △물속에서 사는 플랑크톤 관찰하기 △수질검사 체험 △수돗물 퀴즈 풀이 등 주제별로 전문가가 나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흥미로운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체험신청은 15일부터 8월9일까지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https://water.gwangju.go.kr>), 이메일(jyg1995@korea.kr), 전화(062-609-6453)로 가능하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체험 인원은 회당 20명으로 제한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서울푸드 인 방콕'서 농수산물식품관 운영

전남도가 오는 10월 코트라가 동남아 시장을 겨냥해 태국 방콕에서 주최하는 '서울푸드 인 방콕 2024(SEOUL FOOD in Bangkok 2024)'에서 전남 농수산물식품관을 운영한다.

오는 10월18일부터 3일간 방콕 아이콘 시암에서 열리는 '서울푸드 인 방콕 2024'는 코트라의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인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SEOUL FOOD)을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동서양을 잇는 아시아의 관문 방콕에서 열리는 전남산 농수산식품의 동남

아 수출 교두보를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전남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된 농수산물식품 생산·유통기업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제품 개발 및 포장 디자인이 된 제품을 보유한 업체다. 총 11개 기업을 선정해 부스 설치, 바이어 유치 및 상담, 통역비, 항공료(50%·1사 1인), 통관비 등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요건을 갖춘 기업을 17일까지 시군당 최대 2곳을 추천받아 기업의 수출시장 개척 노력, 기업 기술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활동 '쟁걸음'

추진단, 현황 점검·전략 논의 8월중 민간유치위원회 출범

전남도는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실무회의를 열어 정부의 2차 이전 계획 등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향후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열렸다.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은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하며, 농·생명, 해양·수산, 에너지·환경, 항공·

첨단, 문화예술·관광,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등 7개 분야 50여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칠 12개 담당 실국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이전 공공기관, 소관부처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 이전 공공기관 정보 교환, 민간 유치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을 기반으로 실국별 체계적 공공기관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향후 도지사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단 총괄 책임자인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치권, 시민단체와 연대해 정부 방침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핵심 공공기관을 전남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추진단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 협조, 농업·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하고 8월 중 유치 목표기관의 전·현직 임직원,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기관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공기관 이전을 홍보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민간단체 릴레이 결의, 신문기고 등 전방위적 홍보, 광주시와 공동정책토론회 개최 및 공동 유치 성명서 발표, 대정부 건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도·시민의 공감대 확산 등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식품수출협회, 지역 농수산물 수출 앞장

전남식품수출협회가 '전남 수출기업 교육 및 품평회' 등을 통해 지역 농수산물식품의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 등 수출에 앞장 서고 있다.

전남도가 후원하고 전남식품수출협회가 주최한 전남 수출기업 교육 및 품평회는 지난 12일 나주에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코트라(KOTRA)광주

전남지원단, 전남농업기술원,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시군 공무원 및 수출기업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잘 팔리는 최신 상품과 소비자 유통 트렌드 분석, 수출통관 교육, 중국 심천에서 12월 개최하는 식품박람회 소개, 미국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위시플러스(Wish+) 입점 방법 및 사업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리는 최신 상품과 소비자 유통 트렌드를 분석하는 시간에는 편의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 냉동김밥 등 최신 히트 상품 브랜드, 성공 사례 분석 등이 이뤄져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수출통관 교육을 통해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련된 실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으며, 수출기업별로 맞춤형 수출제품 컨설팅과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돼 기업의 문제 해결도 도왔다. **오지현 기자**